

조금만 더...

1.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오늘 축일은 천국의 모든 성인들, 특히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 그래서 전례력에서 따로 기억하지 않는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2. 사람들은 ‘성인聖人’이라고 하면 아주 거룩하고,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고자 하는 성인은 그런 분들만이 아닙니다. ‘성인’이란 넓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하느님 나라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다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성인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4. ‘성인’이란 절대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노력하셨던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감사하며 살아가신 분들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충실히 지키고자,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희생하고 인내하고자 노력하고, 조금만 더 기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조금만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 역시 ‘성인’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성인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마주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기 도미니코 신부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 1 독 서 묵시 7,2-4,9-14
화 답 송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제 2 독 서 1요한 3,1-3
복 음 마태 5,1-12L

주일 전례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11월은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기억하는 위령 성월이다.

특히 11월 둘째 날은 우리가 '위령의 날'로 지내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묘지를 참배하며 기도한다. 그것은 연옥의 영혼들이 우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또 인간의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천주교 묘지 입구에 'Hodie mihi Cras tibi'라고 하는 라틴어 문구를 써 붙인 곳이 있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 띠비'라고 읽는데, 그 말은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라는 뜻이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인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사실과 가장 불확실한 진리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방문자들이 생각하면서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살아간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러다 보면 죽는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인생의 저 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눈을 감고 숨을 조금만 멈추어 보라. 바로 거기에 죽음의 그늘이 있다. 차를 타고 도로를 질주해 보라. 거기에도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의 오래된 신앙 서적인 준주성범(遵主聖範 Imitatio Christi)이라는 책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구는 칼에 맞아 죽고, 누구는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누구는 먹다가 죽는다. 또는 불에 타 죽고, 병에 걸려 죽고, 강도에게 끌려가 죽는다. 이처럼 사람은 죽음으로 끝을 맺으니, 사람의 생명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사실 삶과 죽음의 거리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찰나의 순간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남는다. 그렇다고 살아남은 자가 죽음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잠시 죽음이 그를 비켜 갔을 뿐이다. 죽음은 언젠가 그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는 일에만 급급하며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이며, 또 죽음 후에 다른 삶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는 동안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며, 모든 이에게 잊힐 것을 생각하니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되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요한 11,25-26 참조) 하셨다. 사도 바오로도 2코린 5,1에서 우리의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고 하면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동전의 양면처럼 늘 우리와 함께하는 죽음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종 직전의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된 한 가지는 "살아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니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보고서가 있었다. 그렇다. 지금 죽을 수 있는 자야말로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 온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다. 11월 한 달이라도 먼저 떠나가신 조상, 부모와 형제, 친지와 은인,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죽음 준비도 잘하도록 하자.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영적으로 성장한 이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박재찬 안셀로 신부/ 분도 명상의 집

“OO 자매 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 말을 잘 들어 주고 늘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런데 □□ 형제는 곁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는 불평을 쏟아 내기 때문입니다.” “△△ 자매는 자신과 큰 상관없는 어려운 이들에게,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늘 베풀며 사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부럽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들은 우선 ‘개방성Openness’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틀이나 잣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심지어 고통이나 시련 앞에서도 개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주 오는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물론 그들도 고통을 받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 도구임을 알기에 하느님의 은총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한 이의 특징은 ‘통합적인 삶Integration’입니다. 육신과 영혼, 세상과 교회, 활동과 관상 등을 분리하거나 단순한 조화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볼 줄 알게 됩니다. 이는 ‘전인소인적인 삶’ 혹은 ‘비-이원론적인 사고’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열심히 사는 신앙인 가운데에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신을 돌보는 것은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 육신을 포기한다는 말은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육신을 돌보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하여 그릇된 영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니 좋았다”(1,18)라고 하신 모든 세상 만물을 무조건 속된 것으로 여기며 멀리하는 것은 통합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 등 세속적인 것에 몰두하여 하느님의 것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며 세상 만물 안에 거룩하신 하느님이 내재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신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기에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넘어 모든 것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 뵈고 깨어난 삶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한 이들은 ‘보편화된 사랑Universal love’을 나눌 줄 압니다. 사랑에도 레벨Level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 우리 집단만을 생각하는 사랑은 낮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더 큰 사랑을 하는 이는 경계 없는 개방성 안에서 종교와 문화와 이념을 넘어 모든 이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빈센트 성인이나 마더 테레사 성녀, 토마스 머튼 신부 등의 삶을 살펴보면, 종교나 이념이 다르다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하였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루카 10,25-37) ‘지금 여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도 바로 ‘자비로운 사랑’인 것은 하느님 사랑의 열매는 종교를 넘어 모든 인류가 구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이들은 ‘일상에 충실’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이가 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을 하며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영적인 자유로움 안에서 사람이거나 사건에 집착하지 않고, 매일매일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이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성장한 이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호에서 이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시민’과 교황님의 위로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14일 일반 알현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코로나 대유행 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는 ‘선한 시민’이 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있었던 알현에서 교황께서는 “나는 이 계단을 내려가 여러분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여러분과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인사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대유행의 종식에 협조하는 ‘선한 시민’이라고 믿습니다.”

교황께서는 시편 전체에 대한 묵상을 통해 지금의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하느님 신앙의 진수를 전해 주십니다. 다음은 일반 알현에서 행하신 강론의 요약입니다.

“시편에는 기쁨, 슬픔, 의심, 희망, 비통 등 인간의 모든 정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인생살이에서 체험한 인간적 상황들을 반영하는 거울’(가톨릭 교회 교리서, 2588)입니다. 시편에는 인간 상황에서 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불확실성들과 싸우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작가는 인간의 고통은 인생의 한 부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고통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고통은 해방을, 눈물은 위로를, 상처는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 앞의 인간 고통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시편 작가는 56편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뜨내기, 당신께서 적어 두셨습니다. 제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으소서. 당신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6절)

하느님 앞에선 인간은 낯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느님께서 아시는’ 얼굴이자 마음입니다. 시편에서 신앙인은 답을 찾습니다. 신앙인은 비록 인간의 문이 닫혀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전 세계가 슬픔의 언어를 읊는다 할지라도, 하느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울음은 아래에 고여 썩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올라갑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받고 죽음에 직면한 자녀들을 위해 당신 스스로 우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수께서 우신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고, 나자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십니다. 하느님께서 우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십니다.

예수께서 슬픔 때문에 나와 함께 우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는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면, 삶은 고통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선한 것의 위대한 지평을 여는 것이며, 완성을 향해 방향 지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인내하며, 힘을 내십시오. 예수는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원주민에 대한 스웨덴 교회의 사과



스칸디나비아의 사미 원주민들은 사미족 고유의 민족성을 박탈하고 억압하는 공격적인 동화와 흡수 정책과 이른바 ‘퇴보’된 ‘원시’ 사회의 문명화를 빌미로 자행된 권력의 폭력을 오랜 시간 경험하였습니다.

사미족은 인간이 살기 부적합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북회귀선 이북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입니다. 사미족은 어업, 모피 생산, 양치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만, 순록 사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순록은 현지인들의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지의 혹독한 환경을 인내와 슬기로 이겨내며, 평화롭게 살아왔던 사미족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억압받았고 소외되었으며, 멸시를 당해 왔습니다.

이 ‘역사적 억압’의 일부가 교회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스웨덴 교회는 이 사미족들이 경험한 이 ‘역사적 억압’, 공격적인 세례와 폭력적 동화 정책에 의한 사미족에 대한 민족적 멸시에 대해 사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테 자켈렌 대주교는 민족 생태학 연구를 핑계로 독일 나치와 유사하게 사미족들의 두뇌의 치수를 측정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역의 본당들은 사미족에게 매우 심각한 모멸감을 안겨주는 민족 생태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적절한’ 사과를 위한 사미족 기구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스웨덴 교회의 결정에 대해 스웨덴 사미족 연합(SSR)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미족 연합 의장인 아사 라르손 블린드는 “이것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야심 찬 신호”라고 평가하였지만, 그 사과가 체감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 성장의 뒤편길에 그늘진 음지의 아픔을 잊지 않는 역사의식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교회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여야 합니다; *ecclesia semper reformanda*)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